



문상화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선원총림의 법전(法典)

“청규(淸規)”란 청정한 대중들이 모두 함께 준수해야 할 규칙·규율이라는 뜻이다. 곧 선종사원의 운영방침과 생활규칙, 그리고 규율 등을 제정한 정관(定款)으로서, 한 도량에서 수행 정진하는 구성원이라면 상하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지켜야 할 공통된 규약(共住規約)이다.

선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청규를 집대성해 총림 운영의 법전(法典)으로 성문화(成文化)한 이는 당(唐) 중기의 선승으로서 마조도일의 제자이자 황벽희운의 스승인 백장회해(百丈懷海; 720~814) 선사이다.

총림의 법전인 (백장청규)는 청규의 비조이다. 역사가들은 후대의 여러 청규와 구분하기 위하여 (고청규(古淸規) 또는 (백장고청규)라고 부른다. 중당(中唐) 정원(貞元) 연간(785~804), 대략 백장의 나이 70세를 전후한 시점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고청규)는 황소(黃巢)의 난(875~884)으로 야기된 당말 오대(五代)의 정란과 풍한 등으로 인하여 산실(散失)되고, 지금은 전혀 오지 않는다(흔히 말하는 <칙수백장청규>는 원대에 편찬한 것이다).

다행히 송조의 한림학사 양억(楊億, 楊文公; 974~1020)에 의하여 그 내용이 요약되어 (전등록)(1004년) 6권 백장회해장(章) 끝에 부록(명칭 ‘禪門規約’)으로 전해 온다. 또 장로종색의 (선원청규) 10권에도 (고청규)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백장규승승(百丈規繩綱)’이 수록되어 있어서 대강이나마 (백장고청규)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다음은 각 청규에 대한 개요이다.

1. (백장청규) : (고청규(古淸規) 또는 (백장고청규)라고 부름. 백장회해가 인도의 율장과 중국 유가의 예의 및 법도를 절충해서 제정한 최초의 청규. 승당의 규칙 등 선종교단의 여러 제도와 기구 등을 정한 것으로 당 중기 정원연간(785~804)에 성립됐을 것으로 추정. 현재 원본은 산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다만 그 내용을 요약한 ‘선문규식’이 (전등록) 6권 백장회해장(章) 끝에 수록돼 있다. 이 청규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선불교가 율장사원의 더부살이로부터 독립해 하나의 종파로 성립하는 계기가 됐다.

2. (선원청규(禪苑淸規)) 10권 : 장로 자각종색(長慈薩覺宗顯, 미상, 송초)이 편찬. 송(北宋) 송녕(崇寧) 2년(1103년)에 성립. 4만8000여 자(字). 송녕 연간에 편찬됐다고 하여 ‘송녕청규(崇寧淸規)’라고도 함. (백장고청규)에 이어 두 번째로 성립한 청규로서 현존하는 청규 중에는 가장 오래된 청규. (고청규)의 법도를 지키는 한편, 널

리 여러 총림의 제도 등을 참고하여 만들었음. 자료적 가치가 가장 높은 청규로서 당, 북송 때 총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후의 청규들은 이 청규를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우리나라 (고려본 선원청규)는 이 청규의 복간본이다.

3. ‘입중일용(入衆日用)’ 1권 : 남송(南宋) 가정(嘉定) 2년(1209)에 무량 종수(無量宗壽)가 편찬함. ‘무량수선사 일용소청규(無量壽禪師 日用小淸規)’라고도 함. 3400여 자(字).

4. (입중수지(入衆須知)) 1권 : 편찬자 미상. 남송 경정(景定) 4년(1263년) 경 편찬. 약 1만7000여 자(字). 앞의 ‘입중일용’과 함께 선원총림의 초심자를 대상으로 편찬된 계몽적 성격의 청규이다.

5. (총림교정청규총요(叢林校定淸規總要)) 2권 : 남송 합순 10년(1274년)에 유면(惟勉)이 편찬함. 3만6000여 자(字). (교정청규(校定淸規)), 함순연간에 편찬됐다고 하여 흔히 (합순청규(咸淳淸規))라고 한다. 이 청규의 특징은 종래 총림의 규칙에 대해 그 폐단과 예방(豫防), 시정해야 할 사항

백장회해, 청규 첫 집대성

당말 전란과 풍한으로 산실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예컨대 지금 제방의 연수당(열반당)은 무용지물이라고 꼬집고 있다. 그 밖에도 많다.

6. (선림비용청규(禪林備用淸規)) 10권: 원(元) 지대(至大) 4년(1311)에 택산일합(澤山日咸)이 편찬. 지대청규(至大淸規)라고도 함. 6만6000여 자. 앞의 청규들에 비하여 매우 체계적으로 편찬된 청규이다. 따라서 자료적 가치도 높다. 비교적 완비된 청규이다.

7. (환주암청규(幻住庵淸規)) 1권 : 원(元) 연우(延祐) 4년(1317)에 중봉명본(中峰明本)이 환주암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함. 2만9000여 자(字). 문도들을 위한 청규로서 널리 이용된 청규는 아닌. 줄여서 ‘환주청규’라고도 한다.

8. (칙수백장청규(勅修百丈淸規)) 8권 : 원(元) 지원(至元) 2년(1338)에 당시 백장사의 주지인 동양덕휘(東陽德輝; 1336~1338)가 직명을 받아 편찬. 간행함. 그래서 (칙수(勅修)백장청규)라고 함. 7만6000여 자(字). 또 지원연간에 편찬. 간행됐었다고 하여 (지원청규(지원청규(至元淸規))라고도 함. 매우 체계적이지만 원대의 국가주적 색채가 농후하다. 원(元) 황제 순종(順宗)

은 이 청규를 중국의 모든 사찰에 배포하여 준수토록 했다. 제목이 (칙수백장청규)여서 마치 백장 당시에 성립된 (백장고청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나라 때 편찬된 청규다. 총 8권 9장(부록까지 합하면 10장)으로서, 앞의 장로 종색선사가 편찬한 (선원청규)에 비하면, 황제의 수명장수를 비는 축리장(祝釐)과 보은장 등이 들어가 있는 등 잡스러운 것이 많다.

9. (총림양서수지(叢林兩序須知)) 1권 : 명(明) 숭정(崇禎) 12년(1639)에 행원(行元)이 편찬함. 명대(明代)에 편찬된 소(小)청규로서 6두수와 6지사의 소임에 대하여 서술했다.

10. (영평청규(永平淸規)) : 일본 조동종의 개조 도원(道元)이 가정(嘉禎) 3년(1237)부터 관원(寬元) 4년(1246)까지 약 9년에 걸쳐 편찬한 청규. (영평원선사청규(永平元禪師淸規))라고도 함. 이 청규의 특징은 상당한 지면을 전좌(典座; 음식 담당)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그 의의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전좌교훈). 판도화(辦道話), 부족반법(赴粥飯法; 공양법), 감원(監院) 장(章) 등 4장이다.

이상 10여 종의 청규 가운데 중국 청규로서 중요한 것은 (선원청규)·(교정(校定)청규)·(선림비용청규)·(칙수백장청



2004년 해안사 스님들이 청규 정신에 따라 김장 울ळे에 참여하고 있다.

규)이다. 이 4가지 가운데 성립사적으로 가장 오래되었으며, 자료적 가치가 높은 것은 송초(1103년)에 장로 종색이 편찬한 (선원청규)이다. 그리고 가장 후대의 것은 원대(1338년)에 동양덕휘가 편찬한 (칙수백장청규)이다. 이 두 청규의 비교를 통하여 시대에 따른 청규의 변천사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칙수백장청규)는 원나라 말기에 편찬된 청규로서 모두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원청규)와 비교하면 잡스러운 것이 많이 들어가 있다. 무엇보다도 맨 앞에 있는 축리장(祝釐)과 보은장(報恩章)은 장로종색의 (선원청규)에는 없는 장이다.

“축리”란 황제의 축수(祝壽, 수명장수)와 복을 비는 장(章)으로, 당시 총림에서는 황제(천자)의 생일과 즉위일, 그리고 황태자 생일날에는 대중 모두가 불전(대웅전)에 올라가 황제 일가(一家)의 수명장수와 복을 비는 의식을 올렸다.

사찰에서 황제의 수명장수를 축원하는 것은 당 현종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선종사원에서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다. 청규에서도 “이날 축선(祝聖)하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고작해야 삼팔(三八) 염승 등 특정 행사 때 축원문에서 포괄적으로 “황풍(皇風) 길이 불어서 멀리까지 융창하고, 불일(佛

日)은 더욱 밝아지고 법륜은 상전(常轉)하여 지이다(선원청규)” 정도였는데, (칙수백장청규)에 와서는 한 장(축리장)을 두어 규정화한 것이다. 또 당시 총림의 모든 대중은 매일 같이 아침공양과 점심공양이 끝나면 불전에 올라가서 축수했다[每日祝讚, 齋粥二時下堂, 僧衆必頌讚, 維那舉無量壽呪三, 回向云, 讚誦秘章, 所萃洪因, 端爲祝延, 今上皇帝, 聖壽萬安, 金剛無量壽佛云云]. 그리고 기청(祈晴: 날이 맑기를 비는 것)·기우(祈雨)·기설(祈雪), 일식(日蝕), 월식에 속히 해와 달을 돌려달라고 비는 보은장에 (선원청규)에는 없는 것들이다.

또 하나 ‘능엄주’에 대한 문제이다. 능엄주는 선원에서 대비주(신묘장구대라니), 소재주(消災呪)와 함께 가장 널리 독송되는 다라니이다. 참선 중에 나타나는 마장을 없애고 용맹스럽게 정진하는 힘을 얻기 위하여 독송했는데, 이는 남송 말기부터 시작된 (선림비용청규)에도 있음) 풍습으로서 안거 기간 중에는 능엄화라고 하여 매일같이 능엄주를 독송했다. 한국 선승들도 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장로종색의 (선원청규)에는 그 어디에도 선원에서 ‘능엄주’를 염송하라는 말이 없다. 당대는 물론 북송 때까지도 선원에서는 밀교의 다라니나 주문(呪文)

같은 것은 쳐다 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남송과 (칙수백장청규) 시대 곧 원대에 와서는 마치 능엄주를 화두를 들듯이 수지독송한 것이다. (칙수청규)에는 능엄주를 하라는 대목이 17회 정도 나온다(현재 중국에서는 아침 예불에 능엄주·대비주(신묘장구대라니)·소재길상대라니·준제진언 등 10小呪를 염송한다).

참선수행에서 ‘마(魔)’란 선에 대한 잘못된 이해(신통력 같은 것 등), 잘못된 수행에서 오는 정신적 착란과 착각 현상으로서, 일종의 선병(禪病)이다. 정견(正見)과 정안(正眼) 등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겪는 정신적 오류와 오판이다. 자신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 착시 현상인 환영(幻影)·환정(幻聽)·환시(幻視) 등으로, 이는 어리석기 때문에, 정도(正道)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그리고 화두삼매, 화두참구를 통하여 돈오(頓悟)에 이르고, 이른바 삼불삼조, 확철대오를 외치는 간화선에서, 마(魔)를 해결하지 못해서 능엄주를 외우고, 화두삼매가 되지 않아서 관법으로 능엄삼매법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간화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다. 총림에서는 당연히 선(禪)의 경전인 (유마경)이나 반야지혜의 경전인 (금강경)을 독송해야 한다. 다라니를 독송한다는 것은 선의 정신과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고, 정도는 정진은 이때 다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림의 법전(法典)인 청규는 선종교단의 율장으로서 참선 화도(學道)의 생활을 규율로 정한 것이다. 그 취지와 의의는 참선수행자를 부처나 조사로 만드는 데 있다(成佛作祖). 부처가 되기 위한(견성성불) 공동 수행규칙으로서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체를 위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칙이다.

총림에 법도와 질서가 정연하면 몇 명이 함께 수행해도 적정(寂靜)한 것이 마치 한방이 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질서가 없으면 성불은커녕 자신의 고통사가 빈발할 것이다. 송대의 성리학자 정명도(程明道; 1032~1085)는 어느 날 수백 명이 수행하고 있는 총림에 가서 무인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공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감탄 울(曰)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 예악(禮樂, 즉 道)이 모두 여기에 있구나”라고 했다고 한다.

같은 것은 쳐다 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남송과 (칙수백장청규) 시대 곧 원대에 와서는 마치 능엄주를 화두를 들듯이 수지독송한 것이다. (칙수청규)에는 능엄주를 하라는 대목이 17회 정도 나온다(현재 중국에서는 아침 예불에 능엄주·대비주(신묘장구대라니)·소재길상대라니·준제진언 등 10小呪를 염송한다).

참선수행에서 ‘마(魔)’란 선에 대한 잘못된 이해(신통력 같은 것 등), 잘못된 수행에서 오는 정신적 착란과 착각 현상으로서, 일종의 선병(禪病)이다. 정견(正見)과 정안(正眼) 등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겪는 정신적 오류와 오판이다. 자신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 착시 현상인 환영(幻影)·환정(幻聽)·환시(幻視) 등으로, 이는 어리석기 때문에, 정도(正道)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그리고 화두삼매, 화두참구를 통하여 돈오(頓悟)에 이르고, 이른바 삼불삼조, 확철대오를 외치는 간화선에서, 마(魔)를 해결하지 못해서 능엄주를 외우고, 화두삼매가 되지 않아서 관법으로 능엄삼매법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간화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다. 총림에서는 당연히 선(禪)의 경전인 (유마경)이나 반야지혜의 경전인 (금강경)을 독송해야 한다. 다라니를 독송한다는 것은 선의 정신과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고, 정도는 정진은 이때 다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림의 법전(法典)인 청규는 선종교단의 율장으로서 참선 화도(學道)의 생활을 규율로 정한 것이다. 그 취지와 의의는 참선수행자를 부처나 조사로 만드는 데 있다(成佛作祖). 부처가 되기 위한(견성성불) 공동 수행규칙으로서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체를 위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칙이다.

총림에 법도와 질서가 정연하면 몇 명이 함께 수행해도 적정(寂靜)한 것이 마치 한방이 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질서가 없으면 성불은커녕 자신의 고통사가 빈발할 것이다. 송대의 성리학자 정명도(程明道; 1032~1085)는 어느 날 수백 명이 수행하고 있는 총림에 가서 무인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공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감탄 울(曰)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 예악(禮樂, 즉 道)이 모두 여기에 있구나”라고 했다고 한다.



한광호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hwah9@hanmill.net

大관음사 행자모집

1. 만 50세 미만, 남자, 출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수행위주의 교육
3.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4.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5.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3-474-8228
010-9562-8228

도심사찰 낱골 시설을 갖춘
대한불교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고(古) 건물 수리 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락처 : 053)964-0858
휴대폰 : 011-804-1748

인비록(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목 차)
1부. 신도神道を 닦다
2부. 죽어서 가는 길
3부. 전생과 현생
4부. 내가 본 신의 세계
5부. 기도·수도 체험기

해강 하순천 지음 / 도서 정가 15,000원
도서출판 대도대 / 063-643-7285

인터넷 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베스트셀러

“이제는 신을 바로 알고 자신의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신은 비물집인 기로 이루어진 생명체이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사람은 자신을 뒤덮은 업과 살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 사람은 죽을 당시 모습으로 사후세계에 1,000년을 살아가는데!
- 사람이 죽으면 조상신으로 후손의 몸과 주변에서 살아가는데!
- 조상의 병과 업이 후손에게 연결되어 그 고통을 받는데!
- 조상의 병이 후손에게 이어지는 유전병은 유신병이다!
- 유신병 태어났을 때의 뱃속에서 원한을 갖고 살아가는데!
- 병의 원인이 되는 신을 해결해야 병을 고칠 수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 가위놀이, 귀신들림 등도 악신들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 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인솔치유와 신솔치유를 같이 해야 한다!

(도서판에서)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부산영광도서, 부산세기서림, 부산고려불교원, 인천대하서림, 대구세원출판, 대전보문출판, 대전계룡문고, 대전중앙출판, 대전KG북, 광주총정서림, 광주조원문고, 수원율진문고, 안양중앙문고, 안양대동문고, 안산대동서림, 군포지우문고, 구리동원서적, 부평부평문고, 부천경인문고, 원주동아서관, 춘천경광서적, 제천제일서적, 강릉영동서적, 광주백재문고, 청주일성문고, 청주홍문당, 충주문학사, 구미충안당, 포항포항문고, 김해가야서적, 창원창원서적, 진주진주문고, 남해해안당, 전주홍지서림, 익산대한서림, 군산군일서적, 순천중앙서적, 여수대명서적, 목포국제서림, 제주달라도서 등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영풍·반디앤루니스·인터파크·알라딘·예스24에서 구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임 학습서 ◆ · 육임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하권 45만원 · 육임육임사주강점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육임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이상3종 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임육임생활강점법 2011정권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육임육임산길일기선택비법 2011정권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육임육임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육임육임매월역수 2011정권판 수록 20만원 · 육임육임월영도 2011정권판 수록 20만원 · 육임육임성명학 2011정권판 수록 20만원 · 육임육임정통부적보감 2011정권판 수록 5만원 · 육임육임토정비결수록 5만원 · 육임육임공해몽 5만원 · 육임육임이상1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임 활용서 ◆ · 육임육임에 물어봐 2011정권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육임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육임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육임육임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육임육임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육임육임오행수법제제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육임산길일기선택비법 2011 제3판본 정권본 1권 5만원 · 육임육임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 · 육임육임육임정비법 2011최신판 5만원 · 육임육임불기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육임육임직접판매 고가 육임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육임육임명수 전통1권 / 전통순별6권, B4/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증 선택 773500만원 · 육임육임부적보감 좌정용 전6권 250만원 · 육임육임성명학 휴대용 전6권 250만원 · 육임육임월영도2011정권판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 500만원 · 육임육임성명학 2011최신판 순별 6권 수록 90만원 · 육임육임정비법 최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본 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육임육임에 물어봐 2011정권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추천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나라(주)
이미 최고로 감동되어 있습니다.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함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주)